



2020년 6월 12일
천주교 사이타마 교구 교구장
마리오 야마노우치 미치아키 주교

코로나 19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 (제 9 차)

『성당활동의 재개를 향해』

「긴급사태선언」은 해제되었습니다만, 동경에서는 바로 「동경 알라트(경보)」이 발령되어, 「시련의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경 대교구와 연계하여, 6월 21일부터, 성당활동의 재개로의 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성당활동의 완전한 재개를 향하여 한 걸음 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19로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또한, 아직도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하며, 공지합니다.

6월 21일 부터, 성당활동을 단계적으로 재개합니다.

1. 재개되는 주일미사는 일요일 1회 만으로 합니다.
미사참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미사가 있다고 하여 다른 성당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3.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는 면제 합니다.
4. 평일미사의 비공개(신자가 참여 하지않는 미사)는 한동안 유지됩니다.
5. 후생노동성의 보고에 근거하여, 중증화율(중증이 되는 비율)과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대해서는, 미사 참례의 자속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분들, 지병이 있는 분들께는 매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생명을 지킬 것」을 우선하여, 조금만 더, 자택에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열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에는, 부디 자택에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사 재개 후 상황을 보며, 주일미사의 회수를 늘리는 것과 연령제한의 완화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하루라도 빨리, 걱정 없이, 안심하며, 공동체 전원이 성당에 모여, 모든 주일에, 그리고 평일에도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오리라 믿으며, 함께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베마리아 !